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간대학교육



제701호
2012년 7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일 시 : '12. 7. 26(목) ~ 7. 29(일) 4일간, 10:00~17:00
- 장 소 : 코엑스 3층 홀C
- 주 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교육방송
- 문 의 : 코엑스 행사장 (02-6000-1575~6)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393-5255)



대교협 동정



201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전국 102개 주요 대학 참가」

「참가대학 교수, 직원, 재학생 현장 맞춤 1:1 상담 실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홀C에서 전국의 주요 102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하는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하였다.



□ 올해 세번째로 열리는 수시박람회에는 102개교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2010년 74교, 2011년 95교). 특히 올해 2013학년도 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비중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아져 대학입학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박람회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 고교 진학담당 교사 등에게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대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이번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참가대학별 상담관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홍보관, 입학정보 종합자료관, 진로진학 상담관, 장학금지원 홍보관, 대학정보공시 홍보실, 적성검사실 등 다양한 정보제공관을 운영하였다.

I 참가대학별 상담관

□ 참가대학이 대학별로 “상담관”을 마련하여 교수, 입학담당자, 입학사정관 및 전문상담원 등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전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II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홍보관

□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의 홍보 및 안내 책자 등을 종합하여 전시하고, 일부 자료는 무료 배포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들이 직접 본인의 사례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고등학생이 방학기간 동안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교협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III 입학정보 종합자료관

□ “입학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박람회 현장에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대학 정보, 입학정보, 학문분야정보, 진로정보 등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대입정보 종합검색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IV 진로진학 상담관

□ “진로진학 상담관”에서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소속의 진로상담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무료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25일(수)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 학생에 한해 상담을 진행한다. 대교협의 대입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진로진학상담은 사설 입시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액의 유료 컨설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입학상담으로 인정받고 있다.

※ 박람회장에서 상담 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1600-1615)를 이용하면 맞춤형 상담과 동일한 수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V 장학금지원 홍보관

□ “장학금지원 홍보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맞춤형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한다. 박람회 참가대학별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1:1 상담을 진행한다.

VI 대학정보공시 홍보실

□ “대학정보공시 홍보실”에서는 대학알리미 소개 및 활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학알리미에 대한 개선사항 및 추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VII 적성검사실

□ “적성검사실”에서는 컴퓨터 활용 적성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수험생 본인의 직업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모집단위, 전공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받은 학생은 검사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금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위헌성 내포한 현재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는 재개정되어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주관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서상기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은 개회사에서 “대학에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21세기 핵심과제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의 기여라는 대학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지식의 생산이 장려되어야 하고, 생산된 지식은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원의 공유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들은 지식 나눔과 지식 기부 등 대학에서의 학술 저작물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공정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그에 따른 무료 이용 등 가능한 한 교육기관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현재 제도의 문제점으로 ‘저작권법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복사전송권 행사 규정의 위헌성’,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미분배 이용보상금 사용 규정의 위헌성’ 등을 제시하고, “저작권법 25조의 개정 청원”과 함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효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만을 신탁 받고 있고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대학의 경우처럼 사용하는 저작물의 상당수가 대학에서 창출된 경우, 그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공정 이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하

다”고 지적했다.

□ 곽동철 회장(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은 “보상금 대상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모호성을 갖고 있고, 그 보상금 중 실제 저작권자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차별화된 저작권 처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재금 과장(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은 “현재 고시된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화부와 대학간 수용 범위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유예하고,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정의,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중복지급 배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윤성천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은 “보상금 제도를 통해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의 기준도 정해주어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은 “일원화된 수령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의 효율성,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 일치성에 비추어 대학 측은 일괄적으로 포괄하여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임학연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은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금 비대위 측에 5만6천6백명 교수의 무료 이용 동의서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이형규 위원장은 무료이용 동의서를 실물과 사진으로 공개함으로써 무료동의서 실제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 대응하였다.

□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법적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대학,

관련 기관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대학 소식



전북대학교



□ “학생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어려운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땀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대(총장 서거석)는 올해 1,600여 명의 전국 최대 수준의 학생을 농촌봉사활동에 파견하였다. 7월 16일엔 서거석 총장도 농촌봉사활동 학생들의 대열에 동참했다.

□ 서거석 총장은 이날 하계 농촌봉사활동으로 무주와 진안, 임실 등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진안군 방화마을과 안방마을을 찾았다.

□ 서 총장은 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환경정화를 위해 벽화 그리기와 김매기 등에 참여했고, 마을 주민 및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서 총장은 학생들에게 “이번 농촌봉사활동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흘린 땀방울이 사회진출 후에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



□ 세계 35개국 대학생 2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친구를 사귀는 국제교류행사가 열렸다.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는 7월 17일 오후 6시 대연캠퍼스 미래관 3층 비스타홀에서 외국인 학생과 부경대 학생 등 2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 부경대 국제교류원과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초청 주요국가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 57명, 국제서머스쿨 참가 외국인 학생 81명, 원어민초청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학생 32명, 외국인 학생의 버디(Buddy)로 참가한 부경대생 50여명 등 부경대가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35개국 22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참가하고 있는 국제프로그램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프로그램 참가 소감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한 자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했다.

□ 이날 행사에 참가한 다미안 카스틸레자 게라르도 시누헤 씨(31·멕시코국립대)는 “한국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와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고국에 돌아가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계속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편, 부경대는 50여 개국 1,0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 중이며, 원어민 학생들과 1:1 친구를 맺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류하는 원어민 초청 프로그램, 방학 중 재학생들에게 해외 대학에서 전공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국제서머스쿨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여준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항공우주캠프를 연다. 한국항공대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학교로 초대해 항공우주분야 진학·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캠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캠프는 8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되는 당일 캠프이지만 내용만큼은 여느 캠프 못지않게 알차다. 우선 오전에는 한국항공대 교수가 직접 나서서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인 한국항공대에 대한 학교 소개, 전공 소

개, 학과별 진로소개를 한다. 학생들이 진학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오후에는 캠퍼스 투어를 한다. 학생들은 먼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항공연맹(FAI) 인증을 획득한 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해서 항공우주분야의 역사를 배우고, 3D 모션 시뮬레이터, 비행시뮬레이터 등으로 각종 가상비행 체험을 한다. 이어서 올해 개소한 모의항공교통관제실습실을 방문해 5억 원을 투자해 신규 도입한 최신형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로 관제실습을 해보고, 실제 관제사들이 일하는 관제소도 둘러본다.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비행훈련에 쓰는 경비행기와 활주로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경비행기들이 있는 비행교육실습실에서 정비사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 캠퍼스 투어는 이처럼 항공우주분야의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캠프의 마무리는 물로켓 경연대회다. 학생들은 한국항공대 동아리 '로켓연구회(SRS)'로부터 물로켓의 비행원리를 배우고 직접 자신만의 물로켓을 만들어 날려본다. 수상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한국항공대의 1일 항공우주캠프를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기념품 모자도 지급된다.

□ 한국항공대 박희장 입학사정관은 “항공우주분야는 체험활동을 할 기회가 흔치 않아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기가 힘들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캠프는 항공우주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항공대는 고등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내년부터 캠프의 횟수나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열정과 패기의 대학생들, 교육기부 발 벗고 나서다!

□ 7월 18일(수)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출범을 알리는 창단식이 열렸다. 이번 창단식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 강혜련)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 이경숙)이 주최하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준비 모임인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창단위원회'가 주관하였다.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대학생의 교육기부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할 뿐만 아니라 체험형 창의·인성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대학생 교육기부자 연수 및 대학생 교육기부 홍보 등을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너(초·중·등생)와 내(대학생)가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라는 비전 아래, 교육기부를 통해 초·중·등생에게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건전한 시민이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범하였다.

□ 이번 창단식에는 기존에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할 예정인 대학생 교육기부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 창단식은 식전 행사와 본 행사로 구성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대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교육기부를 향한 꿈과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전시·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 본 행사에서는 대학생 교육기부자와 초·중학생 수혜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비전 선포, 향후 활동 계획 발표, 대학생 교육기부단원 배지 증정식 등이 이어졌다.

◦ 이번 창단식 행사는 기획부터 공연까지 모든 것을 대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함성소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학생과 초·중학생들이 함께 공연한 스트리트댄스, 뮤지컬 공연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시범 사업 운영

(12.4.28 ~ 7.7, 매주 토요일 총 8회)

-명칭: 함성소리 토요일프로그램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

-내용: 다양한 대학생 취미 동아리가 초·중학교를 찾아가 토요일프로그램 제공

-참여: 서울시내 대학생 동아리 17개(대학생 150명), 초·중학생 500여명 참여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활동 유형은 크게 개인 단위와 동아리 단위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단위 교육기부는 대학생 개인이 별도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고 초·중학생 대상 교과학습 지도, 멘토링, 공부방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동아리 단위 대학생 교육기부는 '함성소리 토요일프로그램', '여름방학 쓱쓱캠프', '교육기부 인증(마크) 동아리'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 '함성소리 토요일프로그램*'은 다양한 대학생 취미 동아리가 학기중에 초·중학교를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 축구, 뮤지컬, 노래, 춤, 사진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함성소리 토요일프로그램은 지난 1학기에 서울지역에서 시범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누린 프로그램이다.

※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 (대학생들 고안 명칭)

◦ '여름방학 쓱쓱캠프*'는 방학을 활용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전국 교육소외 지역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2박

3일간 캠프 형태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쓱쓱캠프는 초·중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여섯가지 가치(나눔, 소통, 재미, 치유, 배움, 도전)를 주제로 패키지 형태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쓱쓱 키울 계획이다.

※ Story of Camp, Story of Creativity 캠프 (대학생들 고안 명칭)

◦ '교육기부 인증(마크) 동아리*'는 교육기부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가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로 인증한 동아리를 말하며, 이들은 학기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연중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12년 7월 현재 교육기부 우수 동아리 인증(마크) 심사중

□ 이러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활동은 교육기부자인 대학생과 교육기부 수혜자인 초·중등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기부를 통해 대학생은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은 대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따뜻한 돌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활동을 통해 대학생이 교육기부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등에 따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토요일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